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및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지경자*, 유진영**

영남이공대학교 보건과학계열*, 수성대학교 보건행정과**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Kyung-Ja Ji*, Jin-Yeong Yoo**

Division of Health & Science, Yeungnam Science & Technology College*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Suseong College**

요약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건계열 전공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구 지역에 소재한 일개대학교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5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정서지능은 정서조절, 자기정서인식, 정서활용, 타인정서인식의 4개 하부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타인정서인식은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 행복감에는 자기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이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요인 중 대인관계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은 타인 정서인식이었으며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서활용이었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과 심리적 행복감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분노 조절 등의 정서조절 능력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보건계열전공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은 물론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으로써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에 대한 행복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주제어 : 정서지수, 정서지능, 대인관계, 심리적 행복

Abstract In this research,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were tested with their interpersonal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impact on psychological well being, studied by identifying the factors to promote and foster the students' emo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5, 2003 for two weeks using only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Factor analysi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regulation, self-emotional awareness, emotions, taking advantage of others and emotional awareness was divided into four sub-factors.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advantage and recogni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self-awareness. Emotional impact showed a positive advantage. O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factors that influence others and emotional awareness was highest in the psychological process. Students improv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romote a more psychological well being as the emotion of anger and ability to set goals and to motivate efforts to strengthen the emotional awareness is more important. College students studying in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as well as medical professionals provide better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sake of happiness that can inspire a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and is considered to require constant attention.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sychological Happiness

Received 17 September 2013, Revised 12 Octo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Jin-Yeong Yoo(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Suseong College)

Email: yjyjin@daum.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사회인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중요 요건으로써 정서지능(EI, Emotional Intelligence)이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 방법인 기억력, 수리력, 암기력 등의 인지 능력(Intelligence quotient: IQ) 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무한하고도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잠재 능력 개발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서지수(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EQ)를 비롯하여 도덕지수(Moral Quotient: MQ), 엔터테인먼트지수(Entertainment Quotient: EnQ)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측정하는 지수들이 개발되고 있다[1]. 특히 정서지수(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EQ)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제어하고 스트레스나 좌절을 다음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으로 이용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등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적응과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EI)이 주목되고 있다[2].

우리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2년의 교육기간 동안 지적측면만을 편향적으로 중요시 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성장한 상황으로 정서지능지하라는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3]. 대학입학과 함께 보다 확장된 대인관계와 자율적 분위기의 대학생활을 경험하게 되나 낮은 정서지능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탈행동은 물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기 파괴적 행동양상을 보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4, 5].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은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비율이 적게는 23.2%에서 51.0%까지 일반 성인 남녀에 비해 많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최근 대학생들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부적응 그리고 우울감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되고 있다[7-9]. 학업 성과에 국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게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정서지능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과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정서 지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있어 정서 지능은 향후 의료현장에서 제공하게 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인간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공감능력과 이해 능력은 환자 치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10, 11].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정서지능은 노력을 통해 발전가능하다는 것이다[12]. 일반적 관점에서 사회 진입을 위한 마지막 교육 단계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교육적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정서지능 제고에 주의를 기울여야함이 바로 이 때문이다. 대학생들에게 전공능력 배양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성공한 사회인으로 다시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 판단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서 능력 배양과 지지를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건계열 전공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 구성요인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자기정서 인식은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정서활용은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타인정서 인식은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 구성요인은 심리

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정서조절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자기정서 인식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정서활용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 타인정서 인식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조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구지역 일개 대학교 보건계열 대학생 중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25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를 구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50명의 본 조사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23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2.2 측정변수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서지능 측정은 Wong과 Law(2002)[1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관찰하는데 뛰어나다', '나는 항상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다', '내 친구의 행동을 보면 그 친구의 정서를 알 수 있다' 등 Likert 7점 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복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대인관계는 Schlein et al.(1971)[14]이 개발한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번안하여 수정한[15] 것을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변화척도 문항은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간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만족해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깨닫는 편이다',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쉬운 편이다',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은 빠른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온정적 태도가 많은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인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쉽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쉬운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자신감이 많은 편이다', '나는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 절충을 잘 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표현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느낌을 건설적으로 대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편이다' 등 Likert 5점 척도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행복감은 신체 활동으로부터 경험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Yang(1998)[1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행복감 측정 문항은 '나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흥에 도취한다', '나는 어떤 활동이나 활동 자체에 몰두한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 '나는 모든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맘껏 표현한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항상 정신집중이 잘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매사에 항상 자신감이 있다', '나는 항상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일에서 항상 쾌감을 느낀다', '어떤 모임이건 항상 참여의식이 높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항상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한다', '나는 주변과

항상 화목하며 살아간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끔 시간감을 잃는다', '나는 항상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느낀다', '나는 실제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절실히 느낀다' 등 Likert 5점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83.7%였으며, 연령은 18-22세가 72.4%, 학년은 3학년이 38.9%, 출생순위는 첫째가 43.9%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없음이 59.4%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41%, 만족이 40.6%였다 <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Item	N	%
Gender	Male	39	16.3
	Female	200	83.7
Age	18-22	173	72.4
	≥ 23	66	27.6
	First	57	23.8
Grade	Second	89	37.2
	Third	93	38.9
	First	105	43.9
Birth Rank	Middle	36	15.1
	Youngest	87	36.4
	Alone	11	4.6
	Yes	97	40.6
Religion	No	142	59.4
	Very unsatisfactory	6	2.5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action	30	12.6
	Normal	98	41.0
	Satisfaction	97	40.6
	Very satisfactory	8	3.3
Total		239	100

3.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정서지능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문

항 선택기준인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4개 구성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68.09%였다 <표 2>.

<Table 2> Factor analysis of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	Factor analysis			
	ER	ES	EL	EO
Excited control	.855			
Feelings control	.850			
Emotional control	.800			
Control treatment	.667			
Understanding of self-feeling		.807		
Understand his feelings		.763		
Happiness is self-recognition		.760		
His feelings Recognition		.750		
Self motivation			.795	
Achieve his goal			.781	
Self encourage			.710	
Confidence			.667	
Recognition of others feelings				.813
Understanding of others feelings				.798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				.733
Sensitive to others feelings				.620
Eigen-value	5.967	2.303	1.429	1.195
R ² (%)	36.88	14.39	8.93	7.47
Total R ² (%)	68.09			

ER: Emotional Regulation
 ES: Emotional Self-awareness
 EL: Emotional Leverage
 EO: Emotional Others awareness

정서지능의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정서조절, 자기정서인식, 정서활용, 타인정서인식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서조절은 자기정서인식 0.403(p=0.01), 정서활용 0.463(p=0.01), 타인정서인식 0.180(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정서인식은 정서활용 0.478, 타인정서인식 0.518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정서활용과 타인정서인식은 0.317(p=0.01)의 상관계수 값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대인관계,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값이 정서조절 0.856, 자기정서인식 0.865, 정서활용 0.799, 타인정서인식 0.774로 4개 구성요인 모두 신뢰성 계수가 0.6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대인관계의 Cronbach- α 값은 0.904, 심리적 행복 감은 0.934인 것으로 나타나 문항 제거 없이 모두 사용하였다.

<Table 3> Inter-construct correla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M	S.D	Inter-Construct correlations			
			ER	ES	EL	EO
ER	4.55	1.082	1			
ES	5.26	0.952	.403**	1		
EL	4.6	1.008	.463**	.478**	1	
EO	5.17	0.866	.180**	.518**	.317**	1

** : p<0.01

<Table 4> Reliability coefficients of scale

	Factor	Item	Cronbach's α
EI	ER	4	0.856
	ES	4	0.865
	EL	4	0.799
	EO	4	0.774
IR	-	25	0.904
PH	-	20	0.934

EI: Emotional Intelligence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PH: Psychological Happiness
 ER: Emotional Regulation
 ES: Emotional Self-awareness
 EL: Emotional Leverage
 EO: Emotional Others awareness

3.3 대인관계 영향요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1학년 보다는 2, 3학년이, 종교가 없는 경우 보다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서지능의 요인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된 정서조절, 자기 정서인식, 정서활용, 타인 정서인식이 대인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정서조절 t값 3.201(p=0.002), 정서활용 t값 3.665(p=0.000), 타인정서인식 t값 5.733(p=0.000)으로 가설 1-1, 1-3, 1-4 이 채택된 반면 자기정서인식은 t값 1.702(p=0.090)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정서지능 요인 중 대인관계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은 타인 정서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증결과 F=16.356, 유의확률 0.001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8.6%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을 토대로 한 유의한 영향요인을 포함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대인관계})\hat{Y} = 1.719 - 0.124(\text{더미 여학생}) + 0.124(\text{더미 2학년}) + 0.107(\text{더미 3학년}) - 0.093(\text{더미 종교있음}) + 0.072(\text{정서조절}) + 0.095(\text{정서활용}) + 0.161(\text{타인 정서인식}) + \epsilon$$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value (p-value)	Research hypothesis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stant)	1.719	0.179	9.633(0.000)	
	Gender(0=Male,1=Female)	-0.124(-0.108)	0.060	-2.484(0.041)	
	Age(0=18-22,1= \geq 23)	-0.071(-0.074)	0.049	-1.438(0.152)	
	Grade (0=first,1=second)	0.124(0.141)	0.055	2.245(0.026)	
	Grade (0=first,1=third)	0.107(0.122)	0.054	1.989(0.048)	
	Birth Rank(0=first, 1=middle)	-0.044(-0.037)	0.062	-0.717(0.474)	
	Birth Rank(0=first, 1=youngest)	0.018(0.020)	0.046	0.393(0.695)	
	Birth Rank(0=first, 1=alone)	-0.080(-0.039)	0.101	-0.786(0.433)	
	Religion(0=yes,1=no)	-0.093(-0.107)	0.043	-2.171(0.03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0.048(0.094)	0.027	1.802(0.073)	
	Emotional Regulation(hypothesis 1-1)	0.072(0.183)	0.022	3.201(0.002)	Accept
	Emotional Self-awareness(hypothesis 1-2)	0.049(0.109)	0.029	1.702(0.090)	Reject
	Emotional Leverage(hypothesis 1-3)	0.095(0.224)	0.026	3.665(0.000)	Accept
	Emotional Others awareness(hypothesis 1-4)	0.161(0.328)	0.028	5.733(0.000)	Accept
			F=16.356	p=0.000	R ² =.486

3.4 심리적 행복감 영향요인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서지능의 요인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된 정서조절, 자기 정서인식, 정서활용, 타인 정서인식이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정서조절 t값 3.660(p=0.000), 정서활용 t값 8.366(p=0.000)으로 가설 2-1, 2-3이 채택된 반면, 자기정서인식은 t값 0.207(p=0.836) 타인정서인식 t값 0.378(p=0.706)로 가설 2-2, 2-4는 기각되었다. 정서지능 요인 중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은 정서활용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증결과 F=18.549, 유의확률 0.001 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1.7%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을 토대로 한 유의한 영향요인을 포함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심리적 행복감})\hat{Y} = 1.159 - 0.199(\text{더미 여학생}) + 0.085(\text{학교생활 만족도}) + 0.109(\text{정서조절}) + 0.286(\text{정서활용}) + \epsilon$$

4. 고찰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써 정서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IQ가 높은 것과는 구별되는 영역임을 인식해 가고 있다[2].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IQ에 편중된 교육과 평가 속에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성공적 대학생활은 물론 삶에 대한 진정한 행복감을 갖은 사회적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1학년 보다는 2, 3학년이, 종교가 없는 경우 보다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요인 중 정서조절, 정서활용, 타인정서인식이 대인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은 타인 정서인식이었다. 이는 국내·외의 선행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value (p-value)	Research hypothesis
PH (Psychological happiness)	(Constant)	1.159	0.236	4.906(0.000)	
	Gender(0=Male,1=Female)	-0.199(-0.127)	0.080	-2.484(0.014)	
	Age(0=18-22,1= \geq 23)	0.022(0.017)	0.065	0.340(0.734)	
	Grade (0=first,1=second)	0.073(0.061)	0.073	0.995(0.321)	
	Grade (0=first,1=third)	0.023(0.019)	0.071	0.321(0.749)	
	Birth Rank(0=first, 1=middle)	0.099(0.061)	0.082	1.205(0.230)	
	Birth Rank(0=first, 1=youngest)	0.007(0.006)	0.061	0.116(0.907)	
	Birth Rank(0=first, 1=alone)	-0.095(-0.034)	0.134	-0.707(0.481)	
	Religion(0=yes,1=no)	-0.004(-0.003)	0.056	-0.073(0.942)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0.085(0.120)	0.036	2.382(0.018)	
	Emotional Regulation(hypothesis 2-1)	0.109(0.202)	0.030	3.660(0.000)	Accept
	Emotional Self-awareness(hypothesis 2-2)	0.008(0.013)	0.038	0.207(0.836)	Reject
	Emotional Leverage(hypothesis 2-3)	0.286(0.496)	0.034	8.366(0.000)	Accept
	Emotional Others awareness(hypothesis 2-4)	0.014(0.021)	0.037	0.378(0.706)	Reject
F=18.549 p=0.000 R ² =.517 Adjusted R ² =.489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동기화와 정서 조절이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라고 본 연구결과[4, 5, 7-9] 와 일치한다 할 수 있다. 대인관계 능력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정서조절과 활용을 제고하고 타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요인 중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요인이 대학생들의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행복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서활용이었다. 정서능력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17, 18] 정서인식과 정서조절, 동기화가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할 수 있다[7].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 표본추출에 의한 횡단적 접근법이라는 것과 일개 교를 대상으로 한 점 그리고, 그 수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정서 지능 함양과 제고의 필요성을 파악한 점과 교육적 측면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하는 정서 지능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과 심리적 행복감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분노 조절 등의 정서조절 능력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보건계열전공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은 물론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으로써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에 대한 행복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REFERENCES

[1] Sung-Je Cho, Jun-Young Shim,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brain function, thinking power and multiple intelligence by brain development

training in children. Journal of brain education, Vol. 7 pp. 1-32, 2011.

[2] Ciarrochi, J., Forgas, J. P.,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Psychology Press, 2001.

[3] DOI: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2/2013090202489.html

[4] Brackett, M. A. and Mayer, J. D., Convergent discriminant and incremental validity of competing measu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9, pp. 1147-1158, 2003.

[5] Trinidad, D. R. and Johnson, C. A.,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arly adolescent tobacco and alcohol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2, No. 1, pp. 95-105, 2001.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0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V-1), Vol. 11702, pp. 28-29, 2010.

[7] Su-Mi Yi, Kyung-Ja Cho, Hei-Rhee Ghim,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6, No. 3, pp. 131-147, 2009.

[8] Geun-Myun Kim, Sun-Kyung Cha,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1, pp. 322-332, 2013.

[9] L. C. Dzurec, L. Allchin, and A. J. Engler, First-year nursing students' accounts of reasons for student depress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6, No. 12, pp. 545-551, 2007.

[10] Mayer, J. D., Caruso, D. R., Salovey, P.,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 27, pp. 267-298, 1999.

[11]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Lopes, P. N.,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mental

- abilities with the MSCEI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ssessment. Washington DV: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 [12]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Woongjin Knowledge House, 2008.
- [13] Wong, C-S. and Law, K. S.,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 [14] Schlein, S., Guernsey, B.,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15] Suk-Kyoun Chun,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1995.
- [16] Yang, M. H.,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 Development of cognitive - Affective states scale. Korean J Sport Psychol, Vol. 9, No. 2, pp. 113-124, 1998.
- [17] Day, A. L., Therrien, D. L., Carroll, S. A., Predicting psychological health: assessing the incremental valid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beyond personality, Type A behaviour, and daily hassl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9, No. 6, pp. 519-536, 2005.
- [18] Furnham, A. and Petrides, K. V.,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31 No. 8, pp. 815-823, 2003.

지 경 자(Kyung-Ja Ji)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2년 3월~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보건과학계열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보험정책, 보건의료정보, 의료경영, 의료서비스
- E-Mail : kjchi69@nate.com

유 진 영(Jin-Yeong Yoo)

[정회원]



- 2007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9년 3월~2009년 12월: 춘해보건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 2010년 3월~현재 : 수성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의료정보, 전자 의무기록, 건강보험정책, 노인복지

· E-Mail : yjyjin@daum.net